

11/7/21

설교 제목: 도둑질과 상해에 관한 배상 법규,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식 규정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2 장 1-31 절

(출 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출 22: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출 22: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출 22: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 22: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출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탕겨 날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내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출 22: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출 22: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출 22: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 22: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출 22: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 22: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출 22: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출 22: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출 22: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출 22: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출 22: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출 22: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 22: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 22: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 22: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 22: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출 22: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출 22: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 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출 22: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 낼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출 22: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본장은 전장에 이어 이웃의 재산권 침해에 관한 배상 법규(1-15 절), 결혼 빙자 간음에 관한 법규(16-17 절), 사고 변태 성욕자 우상 숭배자 등에 관한 법규(18-20 절),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21-27 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식 규정(28-31 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 보상에 관한 것으로 이웃의 재산권 침해에 관한 배상 법규입니다.

제 8 계명에 대한 시행 규칙으로 이웃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먼저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

(출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목축을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은 그들의 재산 목록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 경우 절도범은 소의 경우 5 배로 양의 경우 4 배로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양보다 높은 이유는 소는 주인에게 노역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출22: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출22: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출22: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밤에 침입하려한 도적을 물리치려다 살해하였을 경우 정당 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에 침입하려한 도적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과잉 방어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절도범이 장물을 이미 처분하였고 값을 능력도 없을 경우 그는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도적질한 것을 팔아 없애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 두 배로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출22: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 경우 자의로 그랬든 타의로 그랬든 간에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량은 피해를 입힌 양과 동일할지라도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죄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하기 위해 밭을 태우다 남의 곡식 단에 불을 낸 경우

(출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날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내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고의나 악의가 아니고 부주의로 발생하였더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시나무'는 밭이나 과수원의 경계를 삼기 위해 그 주변에 둘러쳐진 울타리용 나무입니다.

위탁한 물건이 도난을 당한 경우

(출22: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출22: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위탁한 물건이 도난을 당했고 또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위탁받은 자는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위탁받은 자가 자신이 물건을 빼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와와 이웃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위탁자가 위탁 받은 자의 재산 중 일부를 자기 것이라 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출22: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경우 재판장 앞에 나가서 시비를 가려야 했는데 이때 위탁자가 승소하면 위탁받은 자는 위탁자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탁자가 패소하면 이는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는 도리어 위탁받은 자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짐승이 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상했을 경우나 도적질을 당했을 경우

(출22: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출22: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22: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출22: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사고가 위탁받은 자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위탁받은 자가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짐승의 본래 임자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단 위탁받은 자는 자기가 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호와께 맹세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호와께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으로 다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위탁받은 자의 집이나 외양간에서 도난당하였다면 이 경우는 관리 소홀로 위탁받은 자가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위탁받은 짐승이 맹수에 의해 찢겼거나 물려 죽었다면 위탁받은 자는 재판관이나 짐승의 임자에게 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배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빌려 온 가축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출22: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출22: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이 경우는 주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다릅니다.

사고 발생시 주인이 현장에 있었다면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보아 빌려온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주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빌려온 자는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린 자가 임대료를 지불했을 경우는 상하거나 죽더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대료 속에 빌려준 것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위험 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린 물건과 임대료 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현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적, 육적 문란에 관한 법,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무당이나 우상 숭배 등에 관한 법, 짐승과의 성교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처녀를 꺾어 동침한 경우

(출22: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했을 경우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처녀를 꺾어 동침한 자가 처녀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출22: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 성혼되지 않으며 동침자는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어야 하는데 납폐금은 은 50 세겔이었습니다(신 22:29).

(출22: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자는 사형입니다(레 18:23; 20:15,16; 신 27:21).

동물을 신성시하여 신격화시켰던 애굽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중요 의식 가운데 하나로 수간을 했다고 합니다.

수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레 19:2;20:7).

(출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제 일계명의 시행 법규입니다.

다음은 약자 소외 계층에 있는 자 곧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만 할 의무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법규입니다.

(출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란 단순히 지나가던 길손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토착민이 아니므로 혈연 및 지연 관계도 없고 법적 신분도 불확실하였기에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23:9; 레 19:33).

자국에 거주하는 이방인에 대한 이런 보호 규정은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만민 평등 사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 매우 고차원적인 율법으로 이웃 사랑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부 고아를 보호하는 법규입니다.

(출 22: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 22: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 22: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구제 활동이 단순한 개인적 자선 사업 활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규입니다.

(출 22: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셨으며 변리를 받지 않는 것을 의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시 15:5; 겔 18:8).

반면 이방인들로부터 변리를 받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신 23:20).

가난한 자에 대한 변리는 압제나 착취로 보았고 이방인에 대한 변리는 상거래를 통한 변리로 보아 허용이 된 듯합니다.

(출 22: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출 22: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팔레스틴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외투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전당 잡으면 가난한 자들이 외투없이 밤에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식 규정에 관한 법규입니다.

(출 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의 보호법에 이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규례가 언급되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출22: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 낼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출 22: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확한 모든 것의 첫 소출을 바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마지못해 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소와 양의 경우 1 주간의 수유 기간이 경과한 뒤 바치라고 하십니다(레 22:27).

(출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성결한 삶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벧전 1:16).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은 모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뜻을 구속사의 각 시대에 맞추어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규를 해석할 때 글자 하나하나를 보기 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법 정신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약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에 담겨진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